여수시, 중화학공업 요람 여수산단 신산업으로 스마트화

탄소중립·청정수소·스마트공정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지난 50여 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역동의 발자취,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현대 산업발전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지난 1967년 제2정유공장 입지로 확정된 이후, 1970년대부터 종합 석유화학단지로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다. 이후 관련 기업들이 과밀 집적되면서 여수산단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 석유화학 메카로 우뚝 섰으며, 이 같은 눈부신 성장은 여수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수출 거점 도시로 변모시켰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여수산단은 최근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 악화와 수익성 저하 ▲급변한 탄소중립 및 환경 규제 패러다임의 영향 ▲산단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지역 상생 불균형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한 경기 불황을 넘어서 근본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에게 준 변화의 신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수산단이 기존의 '양적 성장·범용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친환경·고부가가치·스마트 산단'으로의 혁신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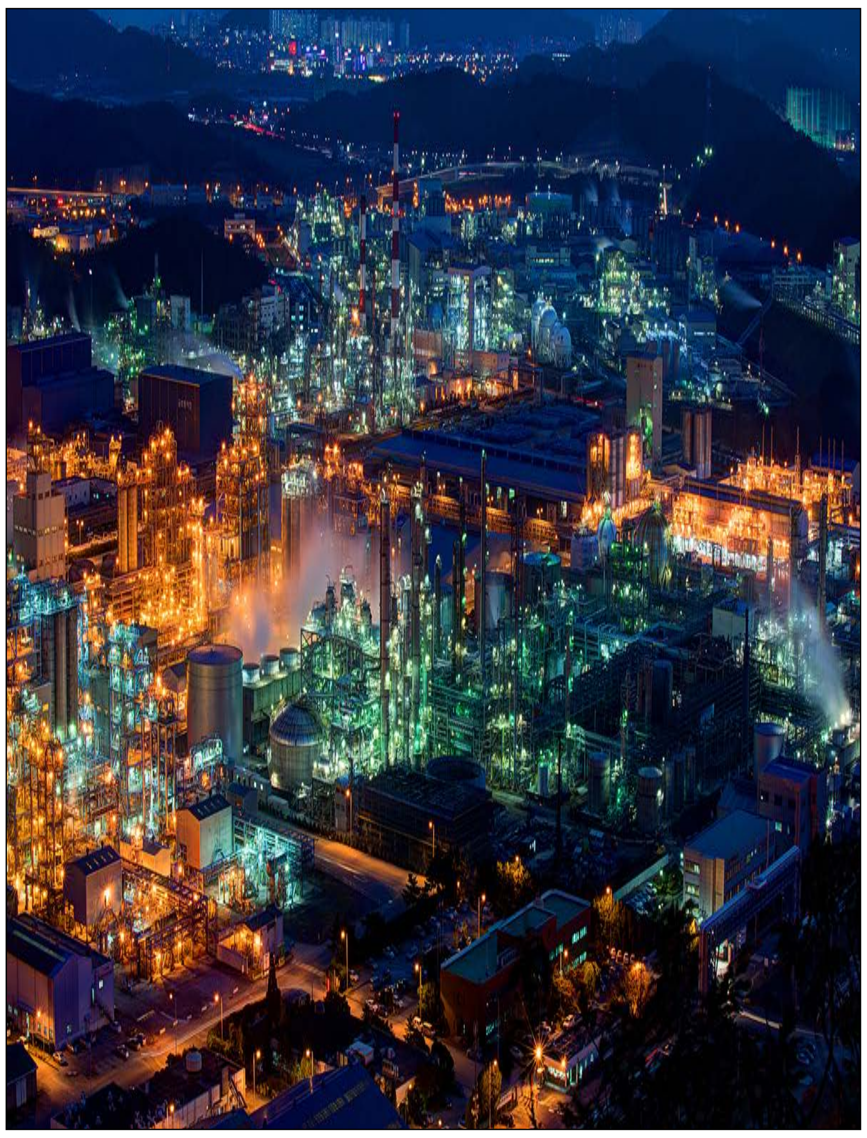
■민선9기 여수시, 산업 혁신의 컨트롤 타워이자 지역 상생의 버팀목으로 적극 나서

지방자치시대에 산단의 위기는 곧 여수시 전체의 위기다. 이에, 민선9기 여수시는 단순한 인허가 및 행정 지원 기관을 넘어 '산업 혁신의 컨트롤 타워이자 기업과 주민을 잇는 상생의 버팀목'으로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단의 범용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해 저탄소·친환경, 고부가첨단 소재로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관리와 공정을 최적화하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산단 전반에 이식해 AI 및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안전 산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지속 요청·추진하는 등 긴급 위기 극복 및 행정·정책적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노한상 기자



여수국가산단 야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가을맞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추진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기 위해 '가을엔 순천, 고향사랑기부 어떰(Autumn)?'이벤트를 오는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순천시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선정을 완료한 기부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순천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시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의 혜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순천을 응원해 주시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향사랑기부를 보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순천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한상 기자

광양시, 예술과 쉼이 공존하는 인서리 공원…가을 정취 물씬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가을 정취가 깊어지는 계절을 맞아 광양읍 원도심 문화벨트의 대표 문화공간인 인서리공원을 예술과 쉼이 공존하는 가을 여행지로 소개했다.

인서리공원은 오래된 한옥과 창고를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갤러리와 카페, 스테이가 돌담과 돌우물, 감나무가 어우러진 옛 정취 속에서 고즈넉한 쉼과 여유를 선사한다. 특히 반창고 갤러리에서는 오는 10월 9일까지 김성결 개인전 「사라진 얼굴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얼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흐릿한 형상과 지워진 표정, 익명화된 인물을 통해 현대 사회 속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되짚는다. 관람객은 작품 속 인물에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투영하며 익숙한 얼굴 너머에 담긴 의미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강렬한 색채와 인상적인 화면은 초상화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존재와 기억,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빛과 어우러진 작품들은 전시의 몰입감을 더한다. 인서리공원은 인서리아트골목길을 따라 광양예술창고, 전남미술관, 광양역사문화관 등과 이어지는 광양 문화벨트의 핵심 공간이기도 하다. 골목길 곳곳에 스며 있는 예술과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면 원도심만의 정취와 문화를 한층 깊이 만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휴일 없이 정상 운영되며 전시 관람과 체험,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가을 여행과 함께 예술과 역사, 휴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한상 기자

곡성군, 2026년 곡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11일 "2026년 곡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상래 곡성군수, 김요순 곡성군의회 의장, 박봉숙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와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고, 2부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상호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가 더 밝은 곡성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 확산과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구례군 자원봉사센터, 어르신 60명에 찾아가는 효도사진 선물

구례군 자원봉사센터가 15일 관내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도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추진된 연속사업으로, 거동이나 여건상 사진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례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봉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례지부와 대한미용사회 구례군지부가 참여해 재능을 나눴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뒤 사진을 촬영했으며, 촬영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추후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지역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 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담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